

2011년 봄호(통권 9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부설기관
- 대구쪽방상담소
 - 만평주민도서관
 -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053)356-0465
053)356-3494~5
053)356-0468
053)425-5539

일본과 한국의 ‘얼굴 없는 천사’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김영달**



일본이 최악의 대지진으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9.0으로, 1900년 이후 발생한 지진 중 네 번째 강진으로 기록됐다. 자연 앞에 인간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았다.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는 노자(老子)의 통찰력이 새삼 와 닿는다. 태산 같은 쓰나미는 인정사정없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지진에 이은 쓰나미, 화재, 원전사고의 복합 대재해는 그야말로 통제불능 상태다.

이보다 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 ‘전후 최대의 위기’라는 엄청난 천재지변에 맞서는 일본인들의 의연한 모습이다. 무법천지(無法天地)의 무질서와 혼란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삶과 죽음의 갈림에서도 더 힘든 처지에 처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슬픔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는 ‘메이와쿠(迷惑) 가케루나 문화’가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번 지진을 스스로 겪고 있는 것처럼 일본을 위로하고 도와줘 감격했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그동안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일본을 도우려는 우리 국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는데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에는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류시원 등 한류스타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한 목소리를 내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진 발생 사흘째인 14일 오사카시에서 70대의 한 여성이 지진피해 복구와 피난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엔을 기부했다. 같은 날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도 고령의 한 여성이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100만엔이 든 봉투를 보내왔다. 이 여성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려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러한 자발적인 도움과 나눔의 모습이 인간이 가진 본성의 한 측면이 아닌가 한다. 자원봉사는 말이 가진 인간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나눔의 가치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가진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이라는 사실은 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느껴진다. 새롭게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이사장이란 직책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책임을 느끼면서도 이런 ‘희망’을 바라보며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지난 15년의 시간을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희망을 지역사회 안에서 더 큰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낀다.



● 표지이야기 ●
사무실 입구 화단에 예쁜 꽃을 심어봤습니다.
조출한 화단지지만, 요즘 원대동 식구들은 점심 먹고 차 한 잔 하며 꽃을 감상하고 대화하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화단의 꽃들은 식구들과 길 가는 이웃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봄의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을 만끽하며 작은 여유를 찾길 바랍니다.

발행일 2011년 4월
발행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표이사 김영달
편집인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3가 1371-6(우703-851)
Tel. 053)356-0465 Fax. 053)356-3496
메 일 vongsa@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vongsa.org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임원



이사장 김영달
 • (주)미래산업개발 대표이사
 • (사)경북이주민센터 이사장



부이사장 노경숙
 • 신영유치원장



부이사장 신경목
 • 대곡제일내과 원장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사)공감 이사



이사 우호성
 • 명리학연구가, 소설가
 • 전)매일신문기자, 경향신문영남본부장



이사 김영대
 • 새대구 법무법인 변호사



이사 윤승걸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원장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장



이사 제영효
 • 나라애드 대표
 • 청주본가 대표



이사 정무호
 • 전)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행정국장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경기복지부장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감사 이창현
 • 대구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대구쪽방상담소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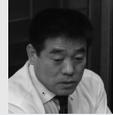


감사 남기정
 • 전)대구쪽방상담소 운영위원장
 • 푸른영상기획 대표
 • 대구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



고문 김 선
 • 계명대학교 미디어아트 대학장
 • 전)국제와이즈맨 대구지방장

대구쪽방상담소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김병덕
 • 파티마노인요양센터 센터장



부운영위원장 이경희
 •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총무운영위원 홍창영
 •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북지부 과장



운영위원 김시승
 • (주)한국칼라콘크리트 대구경북지사장



운영위원 김천호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방재과



운영위원 신창섭
 • M병원 기획이사



운영위원 권영희
 • (주)한국 알파시스템 이사



운영위원 김재진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운영위원 정응태
 • 만평주민도서관 관장
 •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대표

운영위원 남기정
 • (주)PRTV 대표이사
 • 전)대구쪽방상담소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윤승걸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이창현
 • 대구광역시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새롭게 취임한 김영달 이사장, 노경숙, 신경목 부이사장님과 함께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주춧돌이 될 제6기 임원들의 얼굴입니다. 새 봄의 새싹을 기다리며 씨앗을 심는 정성어린 손길과 겸허한 마음으로! '새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씨앗에 충분한 물과 햇빛과 사랑을 듬뿍 주어, 예쁜 꽃밭을 잘 일구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011년 봄호 **촌놈들이 일구어 가는**
복지공동체



06

02 여는 글/취임인사

일본과 한국의 '얼굴 없는 천사'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김영달

03 소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임원, 쪽방상담소 운영위원 소개

05 여는 시 봄날 | 지민겸

함께한 나날들

06 법인의 지난 그림들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08 쪽방상담소의 지난 그림들 | 대구쪽방상담소

12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 대구주거복지센터

14 만평주민도서관의 지난 그림들 | 만평주민도서관

특집

16 따신 밥 한 그릇-다시 뛰어 갈, 내일을 준비하며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17 쪽방주민과 함께한 대구쪽방상담소의 10주년 | 대구쪽방상담소 강정우

새소식

18 대구쪽방 무료진료소 이전

19 개발원, 광개토병원 문화센터에 꿈을 심는다.

개발원이 만난 사람들

20 처음!봉사활동 나들이 | 청소년 자원봉사자

21 눈꽃열차를 타고 무주를 다녀와서 | 인지초등학교 6학년 정용화

회원동정

22 신규회원소개

23 사)공감, 경북이주민센터 소식

살림살이

24 법인 & 만평주민도서관 후원자 및 결산

25 대구쪽방상담소 후원자 및 결산

함께해요

26 일정소개

첨표

27 소원나무

사랑을 나눠주세요.

28 사랑을 나눠 주세요.



08



10



14



21

봄 날

지민겸

봄날은
바장바장 걸음 떼는
상담소 장국장네
예량이 만큼이나
환하기도 하지

바장은 발끝마다
온갖 이쁜 이름들
모두 갖다 붙여 봐도
그래, 그래
다 괜찮지

사랑이고
희망이고
설레는 것들
꽃으로 피어나는
이런 봄날이면

뿌리를 쥐고 있던
열은 손, 땀땀기
폭신하게 풀어지고

상처도 물러지지
아파도 눈부시지

예량이 걸음 따라
아장바장 피어오른
올해의 봄날에는

법인의 지난 그림들



1. 2010년 12월 28일 : 법인 송년의 밤

대구 문화예술회관 아르떼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과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0년 열심히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고 한해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KORAIL 성금전달과 음악 공연, 우수회원 시상, 우수직원 시상, 대구은행 사회공헌팀, 대봉교회 반찬팀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단체의 활동에 힘써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따뜻한 시간이었다.



2. 2011년 1월 3일 : 법인 신년회

수성구 청주본가에서 법인 직원들과 이사회,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2011년을 시작하며 신년회를 가졌다. 한해의 시작과 함께 각자의 희망을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다짐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자기 자신과 법인이 되기를 모두가 진심으로 기원하며 2011년을 맞이했다.



3. 2011년 1월 5일 : 법인 직원연수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법인과 쪽방상담소, 대구주거복지센터와 무료진료소 직원들이 2010년을 평가, 반성하고 2011년을 계획하는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특별히 '홈리스법안 제정'에 관한 진행과정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의 강의를 통해 쪽방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고민을 넘어 정책변화와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직원연수였다.



4. 2011년 2월 9일, 16일 : 감사, 이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2월 9일 법인, 쪽방상담소 감사를 진행하였고 1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사업보고와 2011년 사업계획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선 이사장의 사임으로 인해 김영달 부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추대되어 이사회를 통해 가결되었다. 한편, 감사내용은 정기총회에서 보고되었다.

5. 2011년 2월 22일 : 정기총회, 이사장 이·취임식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정회원 138명 중 42명이 참석하고 37명이 개인 위임하여 개회 성원을 충족한 가운데 2010년 사업과 2011년 새로운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간 이사로 수고해주신 이경재, 이상동, 조갑식, 신완식 이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사장이었던 김선 이사의 고문 추대와 부이사장 김영달 이사의 이사장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부설기관이었던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사)공감으로 창립됨으로 해서 함께하는 마지막 정기총회였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김영달 이사장 취임식]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22일 오후 소상공인진흥원 대구교육센터에서 총회 및 제6기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영달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화,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 직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대최적(最大最適) 활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계명대 미디어아트대학장)전 이사장에 이어 취임한 김영달 이사장은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이사장을 지냈으며 경북이주민센터 이사장, (주)미래산업개발 대표를 맡고 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부설기관으로 대구죽방상당소·진료소, 만평주민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노숙인·족방주민·다문화가족 등 소외된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2.22 대구일보 이해립 기자 hl@idaegu.com)

6. 2011년 2월 25, 26일 : 칠보산 자연휴양림 직원 및 회원 단합회

올해로 3년 째, 매년 봄이면 각종 보고와 계획들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봄맞이 단합대회가 올해도 진행되었다. 영덕 앞바다를 낀 칠보산 자연휴양림으로 법인과 쪽방직원 및 가족, 회원들이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때론 가볍게, 때론 심각하게 삶과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영화를 보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쫄려 잠든 사람...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연말연시의 분주함을 흘려보내며 자신과 서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7. 2011년 3월 29일 : 개발원 아카데미

광개토병원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장준배 사무국장의 강연이 있었다. 강의는 자원봉사의 현주소, 새 흐름, 앞으로의 과제까지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임원, 회원,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의 마음속에 '자원봉사'에 대한 저마다의 의미를 담아가기에 충분했다. 마음에 새긴 자원봉사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8. 2011년 4월 5일 : 홈페이지 기획회의

홈페이지는 단체의 또 다른 얼굴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단체를 알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재정비하고 내용을 갖추는데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며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그 1차 기획회의는 메뉴를 정하고 내용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앞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쪽방상감소의 지난 그림들



따뜻한 나눔 활동



♥12월 15일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쌀, 라면, 겨울 잠바 나눔

♥12월 21일

: KT&G 대구본부, 대학생 봉사단 연탄, 라면 나눔

♥12월 22일

: 대구의료원 간호봉사단 라면 나눔

♥12월 28일

: 대구은행 동내의 나눔



♥12월 28일

: 코레일 대구본부 사회봉사단 주거비, 무료급식비 성금전달



♥1월 25일 ~ 28일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명절 선물 나눔



♥1월 29일

: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연탄 2000장, 라면 150박스 나눔



♥1월 28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쌀 15포 나눔



♥2월 11일

: 대구지방법원 후원금 전달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 둘 모여 쪽방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제자리걸음 일 수밖에 쪽방주민, 노숙인 등 홈리스 당사자에게 표현해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빈곤 없는 사회! 당사자 권리 찾기를 위한 연대활동



1. 12월 7일 : 청와대 시민단체 간담회
박인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주최한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홈리스지원법의 필요성 및 홈리스의 범위 확대, 홈리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2. 12월 21일 : 겨울 반빈곤활동
12월 21일~22일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겨울 반빈곤 현장활동을 진행했다. 15여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참가 하여, 빈곤에 대한 논의와 홈리스 실태와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매년 동짓날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 함께 참석하여 고단한 삶을 살다 거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을 추모하며, 남은 이들의 반성과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3. 1월 6일 : 홈리스연대 운영위
2011년 첫 개최되는 전국홈리스연대 운영위에서는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11년도의 주요사업으로는 2010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홈리스법 제정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새롭게 홈리스 참정권 창출운동을 하기로 했다.

4. 1월 17일 / 3월 22일 : 홈리스입법 공청회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실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서 '홈리스지원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4가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공청회를 개최한 의원은 두 의원이 유일하며,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홈리스의 범위를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며, 민간인 많은 홈리스 단체들도 이러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의 추진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5. 1월 27일 : 전국홈리스 실태조사 보고회
대전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2010 전국 홈리스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했다. 작년하반기에 진행한 거리노숙인, 쉼터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쪽방주민들의 통계 및 생활실태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6. 2월 17일 : 홈리스관련단체 간담회
대구지역에 홈리스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쪽방상담소,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노숙인 쉼터의 실무자들과 대구시 권오춘 복지정책관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예산, 인력부족에 대한 단체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동절기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동절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복지정책관의 당부의 얘기가 오고 갔다.

7. 3월 3일 : 청원인 대회
홈리스지원법 제정 청원인 대회가 국회 앞에서 진행되었다. 70여명의 홈리스 당사자, 관련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홈리스 개념도입, 정부의 체계적 지원, 인권보장, 주거복지강화, 실태조사 실시, 예방정책실시' 등에 대한 요구를 했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8. 3월 3일 :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
전국 쪽방상담소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울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논의와 정관변경, 임원인준(윤승걸 회장, 장민철 사무처장 연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전국쪽방상담소가 목소리를 높여 쪽방주민들의 삶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9. 3월 8일 : 반빈곤네트워크 수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교육장에서 열린 '반빈곤네트워크(준) 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하고 왔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의 2011년 반빈곤정세에 대한 강의에 이어 반빈곤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들 간의 의견 공유를 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앞으로 함께 손을 잡고 빈곤층의 편에 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 3월 11일 :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홈리스복지법제정추진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가 진행이 되었으며, 회의에서는 한나라당(강명순, 유재중), 민주당(이낙연), 민주노동당(광정숙)등 3개 정당에서 발의한 4가지 법안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핵심적으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 졌다. 핵심적인 내용은 홈리스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쪽방상담소의 시설 정의 등이 다루어졌다.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기! '쪽방주민 모임'



1

1. 12월 21일 : 쪽방주민 송년의 밤
 '희망찬 2011년! 행복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밤'이라는 주제로 쪽방주민, 쪽방운영위원회와 함께 송년회를 가졌다. 쪽방주민들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내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서로가 있어 '희망'을 품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특히, 쪽방운영위원들도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날이었다. 모두 다 함께 더 크게 웃을 내일을 위해 운영위원, 직원들은 새해에도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한 쪽방주민들과도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2. 1월 22일 : 희망회 모임

매달 서로간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의 방향도 함께 공유하는 쪽방주민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경험하기 위해 희망회 보다 먼저, 당사자모임을 만들어 진행 중인 서울의 '동자동 사랑방 마을 공제협동조합 창립총회'와 '영등포 해보자 모임'을 방문하고 그 뒷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직 의견 충돌도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쪽방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립의 토대가 되는 든든한 희망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4. 1월 31일 : 설 명절 합동차례상 지내기

대구쪽방상담소는 쪽방주민들과 함께 "명절 합동차례상 차리기"를 진행하였다. 매년 차례상 음식을 후원받아서 진행했는데, 올해는 쪽방주민들과 지역의 후원자들이 전을 굽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더 높힐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외롭지 않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3

3. 1월 22일 : 파산·면책 학교

인권운동연대에서 진행하는 금융피해자 파산, 면책학교에 희망회 회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다. 쪽방주민들도 금융피해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파산, 면책에 대한 방법을 쉽게 이해할수 있는 자리였다. 유사한 피해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

5. 3월 16일 작업장 간담회

몸이 불편해 마땅히 취직할 곳이 없는 쪽방주민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지우개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작업장 참가를 통해 방세, 생활비걱정은 줄었지만 근무하는데 불편하거나 어려웠는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상담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4

6. 3월 22일 :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매달 중순쯤 되면 쪽방주민들과 함께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쪽방에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직접 반찬을 마련하기에는 여건과 여유가 되지 않아 간장과 소금, 그리고 상담소에 지원되는 반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반찬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색하고, 서툴기도 하고, 해매기도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서 반찬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쪽방주민들의 열정을 느낄수 있었다.



6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1

1. 12월, 1월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 국장, 복지정책관 상담소 내방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상담소에 내방하고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이 방문 하였다. 대구지역 쪽방현황 및 동절기 실태, 쪽방상담소 사업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쪽방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2. 2월 11일 : 운영위원회

2010년도 사업보고와 2011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쪽방상담소가 쪽방주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



3

3. 3월 15일 : 광개토병원-무료진료소 진료협약식

광개토병원과 무료진료소 진료협약식을 맺었다. 쪽방주민들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담소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5



4. 3월 18일 : 대구의료원장 간담회

대구 쪽방주민, 노숙인의 공공의료 저변확대를 위한 대구의료원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복지정책관실 직원과 대구의료원 원장, 의료원 부서별 담당자, 그리고 대구노숙인센터,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카톨릭로자회관 노숙인쉼터, 새살림공동체, 지역의 노숙인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쪽방주민 및 노숙인들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하는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의 책임성과 공공의료의 폭넓은 자원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5. 3월 25일 : 진료소이전 개소식 및 의료세미나 개최

대구쪽방상담소 개소 10주년과 쪽방무료진료소의 이전에 즈음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낸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료소이전 개소식 및 의료세미나'를 개최 하여 지역의 관련단체와 함께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문·방송보도 자료 현황>

■매일신문 12월 17일
: 구미 대기업 온정, 칼바람 추위도 사르르~

■영남일보 12월 18일
: 한겨울에도 따스함 넘치는 구미 (삼성전자 등 봉사활동 '훈훈')

■매일신문 12월 23일
: KT&G 대구본부 임직원, 쪽방 700곳 연탄 전달

■파이낸셜뉴스 12월 31일
: 대구은행 신입행원,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활동 전개

■영남일보 1월 3일
: 쪽방 상담소 찾아 겨울내의 전달

■문화일보 1월 26일(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회장 윤승걸)
: "지속적 생활지원으로 안전사고 최소화해야"

■국민일보 1월 27일
: 쪽방 거주자 76% "월수입 50만원 미만"

■내일신문 1월 31일
: "쪽방보다 별드는 골목이 나아요"

■영남일보 2월 1일
: 쪽방 거주 주민에 '사랑의 연탄'

■매일신문 2월 2일
: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 쪽방촌 연탄 전달

■경북매일신문 2월 13일
: 대구변호사회 성금 전달

■대구일보 2월 14일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기탁

■영남일보 2월 15일
: 대구쪽방상담소에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 성금)

■참세상 2월 22일
: 홀리스 1,531명, 홀리스법 제정 청원

■한겨레신문 3월 3일
: "모든 노숙인을 위한 지원법 만들어야"

■obs 뉴스 1월 27일 이경희 운영위원
: 쪽방촌 지원, 법제화 절실

■DGN 방송 2월 25일
: 대구쪽방 무료진료소 이전개소식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의 지난 그림들



1. 12월 9일 ~ 10일 :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워크숍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 주거관련 단체들이 모여 주거복지협의회 총회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하여 많은 단체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하며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 12월 14일 :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제1차 민·관 협력간담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민·관 협력 간담회가 있었다. 주거복지센터 3년 사업의 현황 및 성과, 긴급위기가구에 대한 대처방안, 쪽방매입대주택 운영개선 방안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집수리사업 통합운영체계,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사회적 기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3. 12월 27일 : 전국주거복지센터 제4차 운영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대전역사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는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워크숍 결과검토 및 운영위원 선정, 민관협력간담회 결과 검토, 중간점검 보고회 결과에 따른 향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이었다.



4. 1월 6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착지원 - 금융피해자 파산·면책학교

2011년 1월 6일, 1월 22일, 2월 12일, 3월 12일 주거복지센터 3층 만평주민도서관, 인권운동연대 강의실에서 금융피해자 파산·면책학교를 진행했다. 금융피해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파산·면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금융피해자 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바란다.



5. 1월 13일 ~ 14일 : 전국주거복지센터 협의회 2차 워크숍

충북 대천에서 전국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12개 기관이 모여 1차년도 사업 공유와 문제점과 2차년도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전국의 각 센터별로 개별화된 특화사업에 대한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배우고 보완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회의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잘 풀어내길 바란다.



6. 1월 25일 : 전국주거복지협의회 3차 간담회

대전쪽방상담소에서 전국주거복지 협의회 3차 간담회를 가졌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8명)이 확정되었으며, 총회일정과 사업계획, 주거복지컨퍼런스(안)검토, 사회적 기업이 교육, 국토해양부주관 주택개량사업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7. 2월 18일 : 특수주거취약계층 찾아가는 주거복지 설명회

군위간디문화센터에서 동구 LH마을형사회적기업 컨소시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및 현황, 영구임대/국민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의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8. 2월 24일 : 전국 쪽방매입임대 운영기관 간담회

주거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쪽방매입임대 운영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분야별 대표기관으로 노숙기관(24시간 게스트 하우스), 쪽방기관(대구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기관(강북주거복지센터)에서 대표로 사업현황 및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발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9. 3월 9일 : 주거복지협의회 운영위원회

대전쪽방상담소에서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사회적기업가 교육 및 국토해양부 주택개량 연구용역 사업 점검 그리고 전국주거복지협의회 회칙(안)이 검토 및 확정되었으며 각 영역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일정 및 계획안을 검토하였다.



10. 4월 1일 : 주거복지협의회 창립총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홀리스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 협의회,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상5개 협의회 참여 단체 회원 및 실무자 70여명이 모여 주거복지 관련 연대단체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회 참여단체들의 연대,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며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5. 2011년 2월 21일 : 성교육 공개강좌

부쩍 '성'에 빨리 눈뜨고 궁금한 것이 많은 도서관 친구들에게 바른 성정체성을 심어주고자 '재미있는 성 이야기' 공개강좌를 열었다. 수업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해주는 문민화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수업 시간 뒤에는 학부모와의 면담 시간도 있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다.



6. 만들기 교실

지난 가을학기부터 시작된 만들기 교실이 올해 봄학기에도 어김없이 개강했다. 만들기는 친구들 머릿속에 숨어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은 자유롭게 풀어내는 수업인 만큼 만평주민도서관의 인기 수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인기를 실감하듯, 두 반으로 나뉘어서 수업 중이며, 보조교사로 자원 활동 해주시는 어머님들과 언제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수업해주시는 김대기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7. 독서논술교실

저학년은 책놀이와 함께! 고학년의 친구의 생각을 들어보는 토의로 진행되는, 도서관 개관 이래 장수 문화강좌인 독서논술 교실도 개강했다. 독서논술교실은 아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자기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수업이다. 작년 한 해 여러 독후감상문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재미있는 책 놀이가 올해도 멋진 성과로 다가오길 기대한다.



8. 민요교실

방학프로그램인 씨앗학교에서 진행하던 민요교실을 올해부터는 학기 중 문화강좌에도 개설했다. 아직은 장구 자락에 맞춰 배우는 민요가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에서 서로를 향해 웃으며 열심히 배우고 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발표할 수 있을 실력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자원교사로 활동해주시는 전성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만평주민도서관 카페에 놀러오세요

다음카페 검색창에서 만평주민도서관을 검색하세요.

<http://cafe.daum.net/manpyunglib>

자원
봉사
능력
개발원

밥집 추진계획

- 다시 뛰어 갈, 내일을 준비하며

[대구에도 이런 밥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복지단체와 민간단체들은 후원구조 극복과 나눔사업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재정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품 가게, 자활사업단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도 현재 진행 중인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쪽방무료진료소, 만평주민도서관, 대구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펼쳐가기 위해 무료급식, 쪽방주민 반찬나누기, 따뜻한 겨울나기, 수익사업 등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따신 밥 한 그릇’ 나눔 수 있는 밥집 Project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가치]

‘밥은 하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며 동시에 가장 소중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그 첫걸음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신 밥 한 그릇’ 기꺼이 나누며 걸어왔습니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그간의 사업을 평가, 반성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신 밥 한 그릇’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만큼 소중한 밥, 그 밥을 먹는 사람들 역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늘만큼 소중합니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밥 한 그릇에 담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밥집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의 농촌·도시 간 협정을 통해 농촌을 살리며, 밥 한 그릇 맘 편히 먹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따신 밥 한 그릇 차려낼 수 있는 좋은 밥집의 이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 멋진 이름 보내실 곳 : vongs@hanmail.net / 010-2462-2584(문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8월 말 open 예정인 ‘밥집’은 누구나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분야]

| | | | | |
|------------------|-------------------|--------|------|------|
| 자원봉사 (인테리어 등) | 식기류 및 기타 물품 후원 | 식자재 후원 | 기부후원 | 출자후원 |
|------------------|-------------------|--------|------|------|

문의 및 조연의 말씀 :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사무국 053)356-0465

“따신 밥
한 그릇”



(사)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정성스레 차려드리고 싶은
밥상이야기.



쪽방주민과 함께한 대구쪽방상담소의 10주년



강정우
대구쪽방상담소 팀장

생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Maslow)는 인간의 욕구는 단계가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욕구단계의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입을 것, 먹을 것, 거주지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로 신체적, 감정적으로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며,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로 어디에 소속되거나, 친구, 이성간의 교제나 결혼을 원하는 욕구다. 4단계는 존경에 대한 욕구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집단 내에서 지위를 확보하고자하는 욕구다. 5단계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서서히 상위욕구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2월 24일 대구쪽방상담소가 개소할 당시에는 쪽방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은 IMF금융위기의 여파로 직장에서 내몰린 노동자들과 몸이 아파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당시 방문 진료는 119구급차를 타고 대구의료원으로 급하게 동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위에서 말한 인간의 욕구단계처럼 쪽방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 상담소에서는 2001년 밀반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2년 무료급식, 방문 진료와 거리진료가 시작되어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지원 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근로활동을 통한 재활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작업장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자존감향상을 위한 심리치료, 인문학강좌, 웃음치료, 자조모임조직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대구주거복지센터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8월부터 쪽방주민자조모임이 결성되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에서는 쪽방주민들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고 쪽방주민들이 노숙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쪽방주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노력해왔다.

대구쪽방상담소가 개소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앞으로 지역사회가 쪽방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쪽방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당사자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노력을 넘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쪽방에서 원룸으로 이사 왔어요



서로에게 힘이되는 자조모임



콩나물 다듬어서 맛있는 반찬만들기!



「대구쪽방 무료진료소」이전

2004년 5월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처음 문을 연 쪽방무료진료소가 M병원(2008년 ~2010년)을 거쳐 지난 2011년 3월 1일자로 광개토병원(서구 내당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M병원에서의 진료소 활동을 통해 북부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서구 쪽방 밀집지역의 거점병원 및 의료자원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광개토병원으로 이전을 통해 새로운 거점병원과 의료자원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광개토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및 각종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진료소 이전을 계기로 물리치료실을 3월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광개토병원은 대구의료원과 인접하고 있으며, 2011년도 쪽방주민을 위한 의료예산이 대구의료원에 책정 되어있어서 '무료진료소-광개토병원-대구의료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지원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광개토병원 배병진 원장님(외과전문의)께서 새롭게 무료진료소장으로 활동해 주시기로 하셔서 앞으로 진료소의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쪽방무료진료소의 이전개소식 및 기념세미나'는 2011년 3월 25일(금) 오후 4시에 광개토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쪽방무료진료소

- 광개토병원 5F (대구 서구 내당동 10-14 / 053-565-1190 / www.burn119.com)
- 황제맨션 뒤편
- 내당 홈플러스 → 황제맨션 방향
(버스 : 452, 653 / 지하철 2호선 내당역 4번 출구)
- 구.대영 학원 → 서도초등 → 황제맨션 방향 좌측
(버스 : 323, 323-1, 352, 405, 653)

개발원, 광개토병원 문화센터에 꿈을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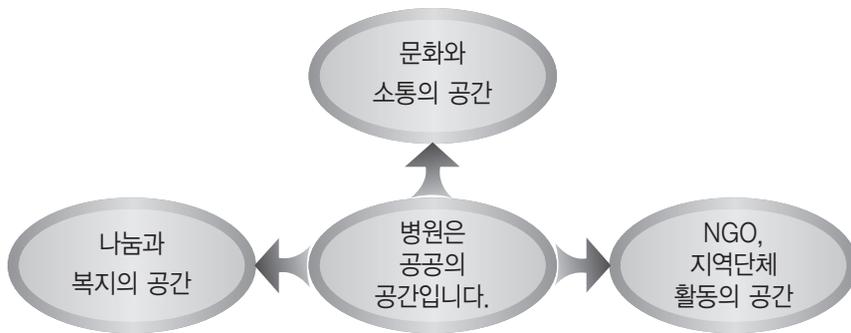


만평주민도서관을 통해 원대동, 비산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쪽방 무료진료소가 이전한 광개토병원과 함께 문화센터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도시공동체’라는 NGO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김주성 광개토병원장은 평소에 ‘지역사회 속의 병원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점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지금의 광개토병원을 새롭게 개원한 김주성 원장은 이러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병원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나눔공간,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간 독서활성화 및 나눔 그림전, 송년 음악회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개발원과 손을 잡기로 하였다.

병원 5층 로비 공간과, 6층의 대강당 및 중강당을 Book Cafe, 문화센터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여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물론이고, NGO 단체,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 공간을 통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3월 말을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문화센터는 향 후, 토론회,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와 소통의 공간은...

- ▶ 사진전시회 : 사진강좌, 주민 사진전
- ▶ 독서토론회 : 주민·대학생 독서토론모임 공간
- ▶ 작은음악회 : 정기 음악공연 프로그램 운영
- ▶ 미술전시회 :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 ▶ 야외 영화제&음악회 : 한여름 밤의 꿈

나눔과 복지의 공간은...

- ▶ 자선공연장
- ▶ 자선바자회&벼룩시장
- ▶ 주민을 위한 「웨딩홀」 공간
- ▶ 자원봉사박람회 유치, 복지박람회 유치

NGO, 지역단체의 활동 공간은...

- ▶ 공공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개최 공간
- ▶ NGO 단체 총회·회의 공간
- ▶ 주민 봉사단 구성·유치

공공의 공간을 위해서는...

- ▶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
- ▶ 공간 운영관련 민간전문단체 위탁
- ▶ 공간이용은 무료 혹은 실비로 이용가능

처음! 봉사활동 나들이

1  A: 야들아~ 봉사활동 시간 다 채웠나?

B  B: 아니, 아직 못 채웠다. ㅠ ㅠ 우리 동네에 도서관 있는데~ 봉사활동 같이 갈래?

C  C: 오늘 학교 12시에 마쳐서 집에서 게임할 생각에 기분 좋았는데~

A  A: 내신 잘 받으려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 오늘 가자.

2  A  B: 연탄 나르기 재미 있겠다~ 나는 연탄!

C  C: 아~ 서가정리 어려울 것 같은데....

A  A: 휴~ 연탄 생각보다 무겁다야~

B  B: 그나마 탄 연탄은 가벼워~

해설 : 이리하여 그들은 황금 같은 오후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그들이 간 곳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부설기관 만평주민도서관이었다. 자원봉사와 오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연탄 나르기와 서가정리 활동 중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해설 : A와 B는 1층과 3층을 오가며 열심히 다 쓴 연탄과 새 연탄을 나르고 있다. C는 도서관벨 400번대 만화책을 혼자 외로이 정리하고 있다. 그 때! D에게서 전화가 왔다.

3  D: 어디고? 봉사하러 갔나?

C  C: 당근이지~ 지금 열나게 책 정리하고 있거든~!

D  D: 맞나? 나도 갈게~

해설 : C는 담당 선생님께 “한명 더 와도 되요?” 물어본 뒤, D에게 도서관 위치를 알려줬고, 친구들 없어 심심하던 D는 바로 달려와 C와 함께 서가를 정리하고 있다. 2시간이 흘러..모든 활동이 끝나고 지금은 오늘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다.

A  A: 연탄 처음 들어 봤는데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연탄 옮기느라 소매가 가매졌는데 짙은 색 옷을 입고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옮긴 연탄으로 누군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B  B: 연탄을 옮긴 뒤에 도서관 청소를 했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봉사여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또, 청소를 다 마칠 참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과 동네 어른들이 내가 청소한 공간에 계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의 힘든 것이 다 날아가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C  C: 봉사가 처음이라서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과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봉사라고 하셔서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D  D: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뭐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친구가 책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함께 했는데 조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하고 나서 도서관에 온 동생이 “와!”하니까 왠지 모르게 보람이다 해야 하나 애매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책도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성취감도 들고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눈꽃열차를 타고 무주를 다녀와서

정용화
인지초등학교 6학년

오랜만에 새벽에 일어나니 무척 힘들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옷을 입고 도서관 앞에 도착해 부모님과 짧은 인사를 하고 동대구역으로 출발했다.

동대구역에서 무궁화호를 탔는데 KTX보다는 자리가 넓지만 책상이 없고 멈추는 구역이 많았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가다 영동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무주리조트에 도착했다. 친구들과 곤도리를 타고 설천봉까지 올라갔는데 멋진 절경이 보였다. 하얀 눈덮인 산에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어있었다. 그리고 넘 추웠다. 모자와 마스크를 차에 두고 내려서 얼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는데 윤정선생님이 목도리를 돌려 주어서 정말 따뜻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영동에 있는 난계국악박물관을 갔는데 편종이 멋있게 보였다. 여러개의 종을 쳐서 내는 악기인데 두드려 보고 싶었다. 눈으로만 본 것이 아쉽다.

난계국악박물관을 둘러보고 난계국악전수관으로 가서 친구들과 국악기 체험을 했다. 나는 북을 쳐봤는데 무거워서 인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무주리조트까지 가서 눈썰매를 못타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눈싸움놀이를 한 것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멋진 눈꽃도 잊지 못할 것 같다.

눈꽃열차를 타고 다녀온 여행은, 올 겨울 방학 멋지고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꾸밈없이 순수하며, 깨끗하다. 그 것이 진정성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무리 추워도 때가 되면 노란 개나리가 피고 목련꽃이 피는 이 봄,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새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져본다.

회원동정

새롭게 손잡은 회원을 소개합니다.

고은주 구복근 권정희 김건우 박공률 박대훈 오은경 윤미경 정무호 제영효 최재희 최현진

자발적 후원금 인상 회원을 소개합니다.

구봉주 김병덕 김윤정 김찬구 노경숙 윤대기 윤승걸 이종돈 지민겸 최은경 허영길 홍창영

신입회원



최현진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봉사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제 삶에 커다란 행복과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나 부족한 마음이지만 감사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더 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박공률

군 생활 때 읽은 하나의 책은 제대 후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제대를 하였고 '별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를 통해 동대구역 무료급식활동, 희망지기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특히 동대구역에서의 무료급식활동을 통해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 노숙인 분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2009년 우연한 계기로 쪽방상담소에서 직장체험을 하게 되었다. 주로 재가방문을 통해 활동을 하였고, 이는 쪽방의 실태를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왜'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왜'라는 생각은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머리에 남겨져 있다. 아직 무엇을 해야만 답을 만들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만 내가 가진 아주 작은 부분을 떼어내어 보탬으로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답을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복근

늘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후원하게 되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굿모닝오티마 약국



대구쪽방상담소는 쪽방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동전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전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시 서구지역 약국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해 주신 비산동에 위치한 굿모닝오티마약국의 백화선 약사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 하나가 모여 쪽방주민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는 만큼, 약국에 배치되어 있는 동전모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땡그랑~!!" 소리 한번 내어 주세요!!



사)공감 북한이주민지원센터

1.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방문

2011년 1월 21일 월요일에 대구광역시 김범일시장께서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들과 탈북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구 시장은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대구시와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센터 확장

작지만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5층은 교육장 및 자활사업단 사업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새롭게 확장한 4층은 직원사무실, 새터민 대학생들의 배움터 및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새롭게 확장된 공간을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공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센터 방문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에서 2011년 2월 23일 수요일에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 계기가 된 이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듣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주민지원센터의 강점인 취업, 교육, 의료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취업패키지 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경북이주민센터

1. 설명절 정나누기 행사

2011년 2월 5일 설 나눔, 정 나눔 행사로 하나센터 수료생 18명이 참석해서 떡국도 나누어 먹고, 윷놀이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명절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2. 의료 협약식

2011년 3월 23일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과 의료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미차병원은 새터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북이주민센터, 공감은 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09년, 2010년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독립된 법인입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내일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 고맙습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 & 만평주민도서관 (2010.12.1~2011.3.31)

작은 마음 나누어

큰 보탬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후원자〉

강동일 강용기 강정우 곽다운 곽종문 구분갑 구분민 구소라 권민재 권영희 김건한
 김경녀 김광미 김규진 김규학 김동국 김민철 김병덕 김봉수 김 선 김성일 김수정
 김승기 김신지 김애화 김영달 김영대 김영은 김영진 김윤정 김재진 김정아 김정호
 김종태 김진국 김찬구 김춘현 김현지 김형섭 김형조 김혜민 노경숙 노교현 노진영
 류창호 박미숙 박상우 박애선 박일숙 박정규 배지영 배혜정 백우열 서상인 서상화
 서희용 성기순 성동건 손영자 송광용 송영규 송지영 신경목 양선현 여상희 오메삭
 원영숙 원종구 유영희 유태영 윤대기 윤승걸 윤 영 윤중곤 윤한웅 은현숙 이경란
 이경태 이광진 이권우 이대명 이동인 이동훈 이상동 이상미 이상윤 이세아 이수연
 이수우 이우식 이정배 이정화 이진경 이진우 이찬상 이현정 임상수 장대환 장민철
 장희영 전정옥 정군자 정무호 정미영 정수영 정연미 정용태 정은찬 정정원 정현오
 정효미 조경락 조상호 조준우 조현숙 조현정 주성민 지숙희 채병준 최경화 최기훈
 최명순 최순자 최우영 최은경 최은지 추연재 태진철 편남희 하민희 함석호 허영길
 홍예숙 홍은숙 홍창영 홍혜옥 황경진 황선연
 김영숙A 김영숙B 박수진A 박수진B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석교회 주현교회 여전도회
 (주)해성광학 KT&G 665-6688대리운전

〈만평주민도서관〉

- 정기후원 : 박애선 윤영희 전정옥
- 물품후원 : 김대기 김은주 박공률 박소정 손소희 여준모 운동민 장은진 지순옥
 하미정 홍윤진 홍창영

앞으로도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 수 입 | | | 지 출 | | |
|-------|---------------|------------|-----|-----------|------------|
| 합 계 | | 42,827,344 | 합 계 | | 42,827,344 |
| 회비 수입 | 일반회비 | 654,000 | 사무비 | 인건비 | 12,774,569 |
| | cms회비 | 7,835,000 | | 운영비 | 6,608,211 |
| | 특별회비 | 30,278,236 | | 업무추진비 | 4,305,110 |
| | 소계 | 38,767,236 | | 소계 | 23,687,890 |
| 사업비 | 만평주민도서관 | 1,688,283 | 사업비 | 자원봉사 사업 | 111,800 |
| | 소계 | 1,688,283 | | 후원홍보 사업 | 4,637,860 |
| 전입금 | 다른 회계 전입금 | 740,000 | | 조직연대 사업 | 1,782,040 |
| | 소계 | 740,000 | | 만평주민도서관 | 1,742,590 |
| 이월금 | 2010년 11월 이월금 | 1,631,104 | 소계 | 8,274,290 | |
| | 소계 | 1,631,104 | 전출금 | 대구쪽방상담소 | 9,174,400 |
| 잡수입 | 기타 잡수익 | 721 | | 만평주민도서관 | 700,000 |
| | 소계 | 721 | | 소계 | 9,874,400 |
| | | | 잡지출 | 잡지출 | - |
| | | | 잔액 | | 990,764 |

★ 혹, 명단에 빠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전화 : 053-356-0465 / 담당자 : 김윤정, 최은경)

* 고맙습니다

대구쪽방상담소

(2010.12.1~2011.3.31)

<듣든한 후원자>

| | | | | | | | | | | | | | | | |
|-----|-----|-----|-----|-----|-----|-----|-----|-----|-----|-----|-----|-----|-----|-----|-----|
| 고은주 | 구봉주 | 구선화 | 권우현 | 권충근 | 김건우 | 김기환 | 김동현 | 김미숙 | 김미정 | 김봉환 | 김상근 | 김상현 | 김수경 | 김승록 | 김시환 |
| 김영자 | 김영희 | 김유성 | 김윤정 | 김임수 | 김일회 | 김잠숙 | 김정현 | 김종훈 | 김지연 | 김진국 | 김천호 | 김학수 | 김현숙 | 김현준 | 김희준 |
| 나석준 | 나정호 | 남길식 | 남홍진 | 류현지 | 박공률 | 박귀자 | 박명숙 | 박미숙 | 박민경 | 박선배 | 박소연 | 박소현 | 박연경 | 박홍배 | 박희웅 |
| 변영호 | 서병철 | 서재희 | 송영규 | 송정옥 | 신상욱 | 신은정 | 양정희 | 오메삭 | 오진미 | 우승봉 | 원동건 | 유상희 | 윤지례 | 이건엽 | 이경미 |
| 이경희 | 이관태 | 이국로 | 이동욱 | 이마트 | 이명숙 | 이병술 | 이상록 | 이 수 | 이수남 | 이승미 | 이승민 | 이시은 | 이신영 | 이애자 | 이은애 |
| 이임희 | 이재심 | 이종돈 | 이주연 | 이주화 | 이준호 | 이창현 | 이태수 | 임경범 | 임동훈 | 임해진 | 전미경 | 전인규 | 정광옥 | 정대식 | 정명숙 |
| 정석찬 | 정재훈 | 정희영 | 조선국 | 조 웅 | 진호림 | 천병우 | 천윤종 | 최규영 | 최병우 | 최윤종 | 한경희 | 현무용 | 황진니 | | |

<물품후원>

- 주거복지재단 백미 10kg 41포, 김장 10kg 41박스
- 부처님나라 백설기 500개
- 삼성동절기쪽방주민사랑나눔 쌀,라면,통조림 850박스
- 삼성동절기쪽방주민사랑나눔 동계점퍼 850개
- 임석기 동계이불 15채
- KT&G 연탄 1,750장, 라면 700박스
- 대구의료원 라면 50박스
- 평화홀딩스 백미 20kg 49포
- 대구은행 동내의 160벌
- 미르불사 떡 1박스
- 서구청 백미 20kg 10포
- 마음의등불 거리급식음식준비 300인분 6회
- 청하이무상사 거리급식음식준비 300인분 3회
- 한국전력대구사업본부 거리급식음식준비 300인분 3회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상품권 750장
- 대구공동모금회 의류 60벌
- 조현정 차약, 칫솔 세트 100개

- 마음의등불 양말 300켤레
- 한국전력대구사업본부 연탄 2,000장
- 건강보험공단 백미10kg 15포
- 마음의등불 양말 750켤레
- 부처님나라 백미10kg 8포
- 문화바우처 손소독제 54개
- 대구의료원 수건 46개
- 정원영(별가사) 중고 TV 29인치 1대
- 이종돈 차약 10개, 비누 10개, 삼푸 10개
- 박공률 중고 냉장고 2대
- 김경중 중고 TV29인치 1대
- 이청권 책장 1개, 진열대 1대
- 김주형 LPG가스난로 4대
- 홍창영 의류 20벌
- 대봉교회 반찬(다시마, 김치) 40세트
- 코레일 대구본부 사회봉사단 200만원

<쪽방에 도움주시는 약국>

경명약국 경북약국 경성약국 광산약국 광양약국 극동약국 대보약국 대일약국 대지약국 동아약국 동재약국 문화약국 바른약국 백상약국 보건약국 보림약국 보성약국 수정약국 신성약국 안일약국 영남약국 우성약국 유명약국 유창약국 유한약국 이화약국 장수약국 제일약국 젤마약국 조인약국 천일약국 청심약국 추계약국 김스약국 평리약국 하림약국 한독약국 해인약국 건강당약국 굿모닝약국 뉴서대구약국 메디팜서진약국 북비산약국 새달성약국 새생명약국 새솔밭약국 새현대약국 서약국 신약국 신평리약국 온누리미소약국 정촌당약국 청암당약국 최약국 한사랑약국

<쪽방진료소와 협력하는 병원, 약국>

M병원 김효정치과 약손약국 영남이비인후과 한영안과 한건호비뇨기과 대구의료원 누가항문외과 광개토병원 늘푸른약국

| 수 입 | | 합 계 |
|--------|----------|-------------|
| 사업 수입 | 명절특식사업 | 740,000 |
| | 기획사업 | 55,259,000 |
| | 공동부업사업 | 1,338,180 |
| | 프로그램신청사업 | 3,537,600 |
| | 대구주거복지센터 | 40,216,878 |
| | 소계 | 101,091,658 |
| 보조금 수입 | 보조금수입 | 57,460,000 |
| | 후원금수입 | 12,795,722 |
| | 소계 | 70,255,722 |
| 이월금 | 전월이월금 | 38,256,270 |
| | 예금이자수익 | 27,491 |
| 잡수입 | 기타 잡수익 | 144,012 |
| | 소계 | 171,503 |
| | 법인전입금 | 9,174,400 |
| 전입금 | 소계 | 9,174,400 |

| 지 출 | | 합 계 |
|-----|--------------|------------|
| 사무비 | 인건비 | 48,975,030 |
| | 운영비 | 11,896,420 |
| | 업무추진비 | 300,000 |
| | 소 계 | 61,171,450 |
| 사업비 | 직업재활사업 | 1,338,180 |
| | 생계지원사업 | 72,342,023 |
| | 기타사업 | 943,000 |
| | 프로그램신청사업 | 2,938,120 |
| | 폭염대책지원사업 | 520,000 |
| | 화랑재활사업 | 2,514,360 |
| | 공중보건의 활동비 | 2,100,000 |
| | 동절기나눔캠페인 | 10,054,400 |
|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 453,600 |
| | 대구주거복지센터 | 25,410,410 |
| | 잡지출 | 2,648,332 |
| 소 계 | 121,262,425 | |
| 잔 액 | 36,515,678 | |

※ 지난해 소식지 지출부분 틀린 부분 정정합니다.

1. 운영비 14,581,150 → 14,331,550원 / 2. 프로그램신청사업 6,880,350 → 6,963,350 / 3. 잡지출 500,000 → 645,000원 / 4. 잔액 38,234,670 → 38,256,270



기/관/별/일/정/소/개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일정

- ▶4월 29일(금)
: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 내국인가족 간담회
- ▶4월 30일(토) ~ 5월 1일(일)
: 회원 만남의 날을 겸함 설립기념일 행사
- ▶5월 19일(목) : 후원의 밤
장소 : 하마호프(계명대 돌계단 옆)
- ▶5월 21일(토)
: 컬러풀 대구 다문화축제 부스설치
- ▶5월 27일(금)
: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 결연식
장소 : 비엔나웨딩(지하철 2호선 내당역)
- ▶6월 7일(화) : 화요 아카데미
- ▶6월 25일(토)
: ‘내-외국인가족 자매결연사업’ 문화탐방

대구 쪽방상담소 일정

- ▶4월 13일 : 공동작업장 야유회
- ▶4월 20일 : 홈리스시설 신규실무자 교육
- ▶4월 ~ 8월
: 자조모임 조직 및 지역자원체계구축
내용 : 희망회, 반찬만들기 프로그램 및 인문학 강좌
- ▶4월 28일 : 쪽방상담소 운영위원회
- ▶4월 27일 :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 ▶5월 12일 ~ 14일 : 주거복지컨퍼런스
- ▶7월~8월경 : 쪽방주민 폭염대책 나들이

주거복지센터 일정

- ▶4월 11일 ~ 12일
: 재개발 · 뉴타운 시민강좌
- 1강 : 부동산계급사회와 하우스푸어
강사 : 손낙구(‘부동산계급사회’ 저자)
일시 : 4월 11일(월) 16시 ~ 18시
- 2강 : 재개발/뉴타운사업 진행절차 및 사업 방식
- 3강 : 도시재정비사업과 주택/상가세입자 손실보상
강사 : 이주원(‘뉴타운! 아는 것이 힘이다’ 저자)
일시 : 4월 12일(화) 16시 ~ 19시

만평주민도서관 일정

- ▶저·고학년 독서논술교실
매주 월요일 15시 ~ 16시 / 16시 ~ 17시
- ▶민요교실
매주 수요일 16시 ~ 17시
- ▶초등학생 만들기 교실 2반 개설
매주 목, 금요일 17시 ~ 18시
- ▶5월 5일 : 어린이날 행사
장소 : 서부초등학교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송년의 밤에서 함께한 식구들의
 [나, 너, 우리를 위한] 소원들이 모두모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주세요



처음의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당연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더 큰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은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으로 가득할 날을 꿈꾸며 '사랑 나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방법 하나 '친.친.더.하.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친구가 친구와 더불어 하나 된 기쁨 나누기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함께 먹고 싶고, 기쁨은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듯이,

나보다 너를, 너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자랑할 만한 멋진 일도 친구와 함께해주세요.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하나 둘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친구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 정기 후원자가 되는 방법

ㄱ. 직접은행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141-05-001390-3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법인)

대구은행 007-04-000442-7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대구쪽방상담소)

대구은행 034-10-004274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주민도서관)

ㄴ. CM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전화(053-356-0465)나 인터넷(www.vongsa.org)을 통하십시오.

방법 둘 '자발적 후원금 인상'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지역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이 마음을 담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자발적 후원금 증액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기다리겠습니다.

■ 이마트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신 영수증 금액의 0.5%가 저희기관에 적립됩니다. 이마트에 배치된 적립기에서 저희기관을 선택해서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영수증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칠성점 : 2번

만촌점 : 164번

시지점 : 80번

성서점 : 135번

반야월점 : 92번

■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쪽방거주인과 북한이주민에게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쌀, 옷, 라면 등의 물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만평주민도서관 책장을 꽉꽉 채울 '책'과 '책장'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053-665-6688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 1,500원이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으로 후원됩니다.